

춘원 이광수론

-장편소설 「원효대사」와 친일(親日)의 변을 중심으로-

한 수 종

hsj141@hanmail.net

1. 춘원 이광수의 존재

춘원 이광수는 최초의 장편소설 「無情무정」으로 일약 文名문명을 떨치고 그로부터 우리나라 신문학의 독보적 존재로 국민의 계몽과 민족의식의 고양 등에 많은 영향을 끼친 대가이다. 「무정」은 당시까지의 이른바 신소설류가 극복하지 못한 ‘구성’, ‘문체’, ‘인물’ 등의 문학과 예술성을 갖춘 괄목한 근대문학의 면모를 보여 독자를 사로잡고 곳곳에 여러 화제를 만 들었다.

민족의식과 남녀의 삼각 애정을 다룬 이 소설은 단연 이광수의 대표작이며 한국소설사에서 문제작이 된 것이다. 그는 소설뿐만 아니라 시, 수필, 평론, 논설 등 문학의 여러 장르에 활동하고 후진들을 지도하였으며, 언문



전주대 국문과 졸업. 2002년 계간《문학과 문화》(지금의《신문예》)로 등단, 동지(同誌) 수필 및 2007년 월간《문학비탕》에 평론으로 등단, 월간《문학비탕》편집주간 역임. 현재 편집고문, 남원고등학교 교장(역임), 대한민국학술원·예술원 교육연구사(역임). 시집「꽃범의 꼬리」, 「갈대, 푸른 하늘을 날다」, 수필집「내가 낸 작은 길」, 번역시집「월강정송 문집」. 현재 월간《문학비탕》에 현역 시인론 57회째 연재 중.

일치의 특유한 문체로 독자를 계몽하고 교도 교화하는 민족 개조론까지 강한 논조로 설명, 설득하는 문장을 써서 일부 독자에게는 반발을 사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한글을 사랑하고 민족애와 독립정신의 강한 소신을 가지고 하룻밤에도 수십 매, 때로는 200매 가까운 원고지에 글을 거뜬히 써서 사람들을 경탄케 한 일도 있다. 그는 한문과 고전 그리고 이두, 신라어에까지 해박한 지식으로 깊이 穿鑿천착하여 수준 높은 작품을 썼으며 불경을 번역 하기도 하였다. 또한 英美영미와 독일 등 문인들의 작품을 원문으로 읽어 해독하고 암송하여 적어내어 외국인을 놀라게 하기도 하였으며,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등 놀라운 재주를 지닌 才士재사로 알려지고 있다. 필자는 소년 시절부터 「무정」, 「흙」, 「사랑」 등을 읽고 그 筆力필력과 해박한 지식에 경탄하고 주제와 문체 문장력 등을 본받고자 하기도 하였었다.

옥에도 티가 있다는 격으로 그는 본래 病弱병약한 체질인데다가 소년 시절부터 폐결핵을 앓아 咯血객혈을 빈번히 하였으며, 獄苦옥고에 견디지 못한 체질로 일제말 그들의 끈질긴 회유와 위협에 굴하여 親日친일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훗날 반민법으로 구금 당하였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나는 등 곡절도 많고 계속 論難논란의 소용돌이에 들었다. 6·25 전쟁 중 拉北남북되어 한때 소식이 끊겼다가 他界타계했다는 풍문이 있었고, 1990년에 춘원의 守息영식 영근이 북한에 들어가 평양의 묘소를 참배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세상에 알려진 바 있다.

이미 춘원 연구서는 300여 편이 넘었다고 하는데¹⁾ 親日친일의 단정 아래 일방적으로 罵倒매도하는 내용이 많다고 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춘원이 신문학 초창기부터 약 35년 동안 우리 문학과 예술 발전에 헌신하고 후진을 육성한 일이며, 국권회복을 위한 투쟁으로 커다란 업적을 이룩한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와 함께 친일의 대열에 섰다가 광복을 맞아 진실과 화해의 여러 과정을 거치며 동인문학상, 미당문학상 등 많은 문학상으로 매년 시상하

1) 구인환, 「이광수론」, 『한국예술총집 문학편 1』, 대한민국예술원 발행, 1991, p.392.

여 그 문인의 영예를 기림과 함께 후진을 육성하는 행사가 수없이 많이 추진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문화 예술계에서 춘원에 대한 배려가 너무 소홀한 것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춘원의 자녀들이 모두 미국으로 이주하여 물리나 화학 분야의 학문 연구를 업으로 하고 있는 것도 고국 동포가 춘원에 대한 홀대로 서운한 심정에서 그런 결과로 변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원효대사」는 1942년에 日帝일제의 발악으로 日語常用어상용과 창씨개명 등 시책을 쓰고, 《조선일보》《동아일보》를 폐간시킨 후의 억압기에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에 연재하는 방법으로 민족정신과 작가의 창작 의도를 교묘히 엮어 발표한 것을 보면 정말 춘원이 친일작가인가 다시 생각하게 된다. 그의 소설은 모두 각별한 집필 의도와 작가정신을 갖고 있지만 일찍이 발표한 역사소설들보다 「원효대사」는 더욱 특별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내가 원효대사를 내 소설의 주인공으로 택한 까닭은 그가 내 마음을 끄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의 장치 속에서도 나를 발견하고 그의 단처 속에서도 나를 발견한다. 이것으로 보아서 그는 가장 우리 민족적 특징을 구비한 것 같다.

나는 원효를 그림으로 불교에 있어서는 한 중생이 불도를 받아서 대승 보살행으로 들어가는 경로를 보이는 동시에 신라 사람을 보이고, 동시에 우리 민족의 근본정신과 그들의 생활 이상과 태도를 보이려 하였다. 이러한 것은 다 내게는 감당치 못할 과중한 과제다. 그런 줄 알면서도 한번 하여본 것은 내 눈에 어렴풋이 뵈는 우리 민족의 모습이 아니 그러보고서는 못 배기도록 그리웠기 때문이다

- ‘내가 왜 이 소설을 썼나’, 장편소설 「원효대사」 부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는 1942년 3월부터 10월까지 신문 연재의 방식으로 발표하여 일본의 압제 정치 아래 힘겹게 사는 우리 민족들에게 민족의 긍지와 우수성을 느끼게 하고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윤희전생의 불

교 사상을 가슴 속에 지니고 굳세게 살아나가는 힘을 기르게 하고자 썼던 것이다.

20편이 넘는 장편소설 가운데 역사소설은 「단종애사」, 「마의태자」, 「이순신」, 「이차돈의 사」, 「공민왕」, 「세조대왕」 그리고 마지막이 된 「원효대사」 등이 모두 항일 자주정신의 振作진작을 위하여 쓴 것이다. 다만 일제의 눈을 속이기 위하여 현대적 전개를 피하고 역사적 인물 가운데서 소재를 취한 것이다. 우리 민족이 국권을 지키고 고유한 문화와 역사를 지니며 살아온 우수한 민족이었음을 들어 현재의 어려운 시기에 민족정신을 일깨우는 내용을 주제로 표현한 작품이었다. 식민지 시대에 춘원만큼 끈질기게 오래도록 대중적으로 민족의식을 고취하려 애쓴 문인은 없었다.

춘원 이광수는 1982년 평안북도 정주 태생으로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외가와 친척집에서 어린 시절을 힘겹게 보냈다. 열 살 무렵부터 동학에 들어 심부름을 하기도 했다. 최남선, 김성수의 도움으로 일본 유학 중 조부의 작고로 귀국하여 한때 오산학교 교사 생활을 하였다. 그 후 다시 도일하여 와세다 대학 철학과에 재학하던 중 학업을 중단하고 독립운동과 민족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활동을 하느라고 東奔西走동분서주하였다.

우리 문학의 불모지에 신문학의 싹을 틔워 최남선과 함께 이른바 2인 문단 시대를 열어 우리 문학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1917년에 발표된 「無情무정」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소설이 된 것이다.

2. 「원효대사」의 작품성과 작가 정신

원효대사의 생애와 업적은 불교계와 『삼국유사』 ‘향가’ 등에 기록으로 남은 내용이 적지 않다. 그는 세상에 나오자마자 어머니를 잃고 절에서 어렵게 자라면서도 남다른 정성과 뛰어난 재주로 불경을 번역하고 새롭게 해석하여 당나라에서 먼저 그 學德학덕과 信心신심이 널리 알려진 큰 스님이다. 『三國遺事삼국유사』에 전하듯, 의상과 함께 중국에 가는 중에 동굴에

서 잠자다가 갈증 해소를 위하여 마신 물이 해골에 고였던 물이라는 것을 알고 모조리 토해냈다. 세상 모든 것은 一切唯心造일체유심조라는 깨달음을 얻어 원효는 유학을 포기하고 국내에 머물며 불심을 닦고 불경을 연구했다는 일은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이다.

요석공주와의 破戒과계로 薛聰설총을 낳은 일도 흥미 있는 설화로 전해 오는데, 그럼에도 원효는 無碍行무애행이라는, 민중 속으로 파고드는 실천 행동으로 모든 격식을 버린 채 밑바닥에서 새롭게 시작하듯 修行과 포교를 하여 한국불교의 위대한 고승으로 알려지고 중국에도 그의 전기가 많이 입혀지고 있다. 그가 쓴 「大乘起信論疏대승기신론소」, 「金剛三昧經論금강삼매경론」, 「華嚴經疏화엄경소」 등은 한국 불교가 세계적인 사상 불교로 우뚝 서게 하였고, 오늘에까지 불교계의 중요한 경문으로 받들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춘원은 소설 「원효대사」서두에 밝힌 대로 출생부터 고난을 극복하며 자아를 실현한 원효에게서 자신의 성장 과정 중의 荊棘형극의 길과 같은 것을 눈여겨보았으며, 원효대사의 훌륭한 성취에 존경과 위안을 느끼면서 감동하고 함께 기뻐하는 일체감도 맛보며 창작하였을 것이다.

일본법사의 호마가 끝나매 원효는 잠자코 처소인 무애당(無碍堂)으로 돌아왔다. 무애당은 분황사 법당 동북쪽으로 따로 떨어져 있는 한 채로서 일찍 지명(智明)대사가 거처하던 곳이다. 원효가 처음 화엄을 배우기를 지명대사에게서 하였다. 그러한 인연도 있고 또 중용한 품이 저술하기에 합당도 하여서 원효는 주실(籌室)도 마다하고 외따른 곳에 거처하며 8년째 「화엄경소」(華嚴經疏)를 쓰고 있다.

- 장편소설 「원효대사」 부분

선덕여왕 다음의 진덕여왕이 승하하기 전부터 궁중에 출입하여 여왕과 요석공주 김춘추 김유신 등과도 만남을 갖다가, 왕의 승하로 護摩호마(명복을 기원하는 궁중 행사)에도 참례하고 돌아온 원효대사의 묘사는 장차 요석공주와의 만남의 伏線복선으로 설정한 것이다. 태종 무열왕으로 즉위하는 춘추(春秋公)의 딸인 요석공주는 누구를 지아버로 삼고 싶냐는 물음을 던지며 내심에 유신공을 생각한 춘추공에 대해 요석공주는 의외로 결연히 원효대사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말을 한 일도 있었다.

결국 납치되다시피 군사들에게 떠밀려 요석궁에 들어갔지만 그 자리는 사뭇 엄숙하고 성스럽게 묘사하였다.

‘원효사마는 이 몸을 음탕한 계집이라고 생각하시오? 나라를 위하여서 그 명복을 빌고 정절을 지킬 몸이 다른 남자에게 뜻을 두는 것을 음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책망하신다면 그 책망도 달게 받사오리다. 그러나 거진 부자가 동시에 전몰하고 그 집을 이어서 분묘를 지킬 자손이 없고, 이 몸도 죽으면 무주고혼이 되오. 다행히 가륙하신 이의 씨를 받는다면, 거진의 집 분묘에도 향화가 아니 끊어지고 나라에도 큰 사람 한 분을 길러 바칠 것 같소. 원효사마 이 가슴이.’

하고 공주는 손을 들어 제 가슴에 대며,

“이 가슴의 젖이 반드시 우리나라에 큰일할 사람을 먹일 것 같소.”

하고 말을 끊고 잠깐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고개를 들고 맑은 눈으로 연연하게 원효를 바라보며,

“원효사마, 이 몸이 비록 불민하나 사마를 따라 세세 생생에 님느라 사마께서 성불하실 최후생(最後生)에 이 몸도 야수다라(耶輸陀羅)가 되어 사마의 입으로서 일체중생 희견여래(一切衆生喜見如來)의 기(記)를 받사오리다.”

하고 공주는 말을 끊었다.

-장편소설 「원효대사」 부분

원효와 요석공주의 화합을 음란하거나 육감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피하고 자비의 불심을 들어 경건하고 엄숙한 명분으로 破戒과제라 할 수 있는 정황을 원효의 남다른 결단과 피할 수 없는 인연으로 설정한 것이 주목되

는 일이다. 원효대사는 사흘을 보낸 후 바람같이 떠도는居士거사의 생활에 들어섰다. 파계승이라는 야유와 공박을 긍정하면서 자신의 無碍行무애행을 닦아 갔다.

뱀을 잡아먹고 사는 사회의 밑바닥 인생들을 濟度제도와고, 무리를 지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는 도둑의 무리를 改過遷善개과천선시키어 서라벌로 들어서서 나라의 큰 일꾼으로 일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삼국통일의 큰 힘이 되게 한 것이다. 결국 삼국통일의 대업은 김춘추의 외교와 김유신의 군사적 영도, 그리고 국민총화를 이끈 원효대사의 공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원효대사의 행적은 파계승이라는 소아적 경지에 머물지 않고 대승적인 큰 보살행으로 민중 속으로 들어가 포교와 자신의 苦行고행을 일체화한 보람이며, 이리하여 불교문화와 세계 사상에 큰 획을 긋는 인물로 빛나고 있음을 소설로 형상화하였다.

춘원은 원효대사를 자기와 동렬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원효대사가 태어날 때부터 자신과 같이 부모와 일찍 사별하고 역경을 극복하며 자아를 실현하는 어려운 고비가 많은 것에 주목하여 그 행적을 특별한 관심으로 묘사하고, 일찍부터 귀의한 자신의 불교 사상을 형상화하며 인물의 창조에 심혈을 기울였다. 원효대사가 요석공주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파계승이 된 일을 다룰 때는 마치 춘원이 민족독립을 염원하고 투쟁하던 절의를 꺾고 친일하게 된 일과 연관지어 자기 변명을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춘원의 소설은 불교사상으로 중생에게 생활의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인생의 장래에 대하여 희망과 광명을 주는 救世의구세적 인도주의 방향으로 살아나가도록 하는 주제를 가지고 소설을 썼다. 그의 소설 「사랑」도 기독교적 박애의 정신이라고 하나 사실은 불교적 沒我몰아의 利他的이타적 요소가 더 많다. 2차세계대전의 전시에 일제가 우리 민족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소모품과 같이 사용할 때에 춘원이 이런 원효대사를 주인공으로 삼아 소설을 썼다는 것은 和諍화쟁이라는 원효사상의 깊고 높은 불교정신과 애국애족하는 정신을 체험적 실증적으로 제시하는 장한의

도였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사실 춘원은 1940년 무렵부터 친일의 대표가 되었는데, 그 代價대가 격으로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에 한글 소설 「원효대사」를 연재한 일은 그 당시 어느 문인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태평양전쟁의 戰時 전시, 日語일어常用상용의 강압제도 아래서 당시 현역 문인의 90% 이상이 친일했다는 사실이 임종국의 조사로 밝혀졌다.²⁾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한글로 한국역사소설을 발표하는 일은 기적 같은 일이었다. 그것은 춘원이 후에 내세운 ‘민족을 위하여 친일하였다’는 이론도 긍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3. 춘원의 인간성과 친일 논란

그로부터 3년 후 일본의 항복으로 춘원도 광복을 맞았다. 일제의 패망을 맞아 춘원은 자숙하는 뜻으로 양주 思陵사릉 근처에 蟄居침거하며 가끔 봉선사에 가서 부처님께 참배하고 명상과 참회의 시간도 많이 가졌다. 그러다가 서울 집으로 돌아와 집필을 하며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였다.

아버지가 잡혀가신 것은 정월 십이일이었다. 따뜻한 방 안에서도 기침으로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셨다. 불기 없는 감방에서 두터운 이불도 없이 지내실 것을 생각하고 가슴이 아팠다. 가슴이 아팠다는 말은 흔히 쓰는 말이지만 진정 당해 본 사람이 아니고는 어떤 것이 가슴이 아픈 것인지 모를 것이다. 나는 가슴이 아프다는 것을 이 때 처음으로 느꼈다.

아버지는 서대문 감옥에서 남대문 일가에 있는 반민특위로 문초를 받으시러 날마다 가셨다. 용수를 쓰고 수갑을 차고 추력으로 날마다 왔다 갔다 하였다. 어머니는 이 모양이라도 보시려고 반민특위 문간에서 계시다가 울고 돌아오셨다.

아버지는 감옥에서 병이 중하셔서 문초를 받으러 오실 수가 없게 되었다.

2) 김우중, 「잊혀진 이광수 묘비」, 《월간문학》, 2011년 4월호, p.300.

어머니가 날마다 가서 지켜 보아도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가도 아버지는 아니 오시더라고 또 우셨다.

- 이정화, 『아버님 春園』(문선사, 1955) 부분

열일곱 살 된 막내딸이 쓴 당시의 기록이다. 이화여고에 다니던 중에 한국 대표로 뉴욕 헤랄드 트리븐사 주최의 세계고등학생 토론대회에 참가하여 뛰어난 활동으로 유능한 외교관 이상으로 한국을 빛내던 때의 기록이다. 주위에서 이를 출판하자고 했을 때 춘원의 부인 허영숙 여사는 정화가 너무 일찍 문필로 알려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였다. 춘원이 일찍부터 문필로 유명해졌지만 너무 욕도 많이 먹고 생활도 어려워 자녀에게는 물리나 화학을 전공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나중에 춘원이 납북되어 생사가 불명인 때 춘원과 절친했던 시인 김용제가 나서서 출판하여 시중에 널리 읽혀지고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장서로 보존되어 있다. 여기에는 가족으로서 일제말부터 겪었던 충격적인 이야기가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오빠의 혈서

제 아비 이광수를 보석해 주옵소서

제가 대신 갇히겠나이다. 제 아비 이광수는 폐병 3기, 신장결핵 척추결핵 늑골결핵 등으로 사선에서 방황했던 것을 세상이 다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병중에서 잡혀 갔나이다. 이 아비를 보석해 주옵소서. 건강한 이 자식이 대신 갇히게 해 주시옵소서. 위원장 선생님께 엎드려 애원하옵나이다.

- 중앙중학 6년생

이영근 올림

반민특위 위원장 선생님에게

- 이정화 『아버님 春園』 부분

어느날 오빠 영근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하고 나오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오랜 시간에도 나오지 않다가 이상한 소리에

놀란 어머니가 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가면서 이게 웬일이니? 하는 소리에 모두 들어가니 책상보는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오빠가 새끼손가락을 입으로 물어 뜯어 혈서를 쓰다가 피가 그치면 다시 물어 뜯어 쓰는 바람에 손가락이 고기 다진 것처럼 되었다는 것이다. 오빠는 다들 나가라고 누구 한 사람 들어오면 큰일 난다고 소리쳐 모두 나왔는데, 한참 후에 위와 같은 혈서를 써 가지고 나와 가족에게 보였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있고 일주일 만에 병보석으로 춘원은 나오게 되었다. 아들의 효심이 신속한 진단을 하게 되고 그 결과 병이 심각하여 석방조치를 받았다.

아버지가 나오신 다음에 들은 이야기다. 붙잡혀 가신 길로 곧 아버지는 반민특위 높은 분의 심문을 받았다.

「그 재주와 머리를 가지고 왜 친일을 하였느냐. 너는 이조 때 이사 같은 놈이다」하고 책상을 치고 야단할 때에 아버지는 「나는 민족 위해 친일 했소. 내가 걸은 길이 정경대로는 아니오마는 그런 길을 걸어 민족을 위하는 일도 있다는 것을 알아 주오,」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분은 이 말을 듣고 분이 충천하더니 펄펄 뛰며 「그래도 잘못했다고 사죄하지 않겠느냐」하였다. 아버지는 또 「나는 민족 위해 친일 했소」했다.

- 이정화 『아버님 春園』 부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춘원의 친일의 변이다. 일찍이 춘원은 자기의 허물을 속죄하는 방법의 하나로 돌베개를 가지고 다니며 베고 잤다고 한다.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그런 자책의 길을 걸은 결과 안면 신경이 마비되고 입이 비뚤어지는 일이 생겨 부인 허영숙이 춘원의 치료에 상당히 고생을 한 일도 있다고 알려졌다.

그의 아내가 된 허영숙은 1916년 겨울에 우리나라 최초의 洋醫師양 의사 修鍊醫수련의 과정을 밟는 중에 춘원과 도쿄에서 의사와 환자로서 우연히 만났다. 아무 도움도 못 받는 상태에서 폐결핵이 심했던 춘원의 절박한 처지를 알게 되고, 그 유명한 춘원의 명성을 익히 들었기에 그의 딱한 처지에 자신이 나서야겠다고 결심하였다. 허영숙은 입원비 부담과 계속되는

간병, 그리고 생활비 지원까지 하다가 귀국하여 서울에서 의사로 근무하였다. 그후 약혼을 하게 되었다는 편지를 춘원에게 보내자 모든 것을 중단하고 서울로 돌아온 춘원이 마침내 중국으로 사랑의 도피를 한 사건은 너무도 유명한 일이다. 그러나 춘원은 그런 달콤한 이국에서의 사랑 행각 속에서도 독립투사들과 연락하여 민족의 자주와 독립정신을 고취하고 안창호 등과 만나 독립운동에 기여하였다. 그러다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민족 자결 운동이 전개되자 허영숙의 만류도 뿌리치고 귀국하여 2·8 독립선언과 3·1 운동을 적극 앞장서서 활동하며, 상하이에서 독립신문의 사장 겸 편집국장으로 활동하였다.

그 후, 이른바 일본의 문화정책으로 조선, 동아 등 민족 신문과 잡지의 발간이 시작되면서 다방면의 재주와 역량이 기대되는 분위기에 춘원은 귀국을 결심하고 서울로 돌아왔다. 아내 백혜순과는 1917년에 결혼하여 아들을 하나 낳았지만 이혼하고 1921년에 허영숙과 결혼하였다. 그러나 허영숙도 춘원과 마음 편히 행복하게 살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춘원을 둘러싼 여인들은 하나둘이 아니었다.

소설가 곽학송의 『춘원전기』와 허영숙의 글, 그리고 모윤숙의 글에서 몇 가지 간추려 본다.

춘원을 따르는 여성이 많았던 것입니다. 혹은 문학을 배우려고 오고 원고를 가질러 오고, 문학 이야기를 하러 오시라고 오고 원고를 쓰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도 오고 춘원의 방에는 문학소녀의 센치멘탈한 그림자가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병이 나서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도 여자들이 늘 와 있어서 내가 가도 들어가 조용히 이야기할 틈이 없는 것이 나는 끔찍이도 싫었습니다. R양, P양, M여자, L여자, 미망인 N, K, 기생출신 또 K양, 꼽아보면 열 사람은 됩니다. 춘원이 그들을 찾아간다든지 은근히 둘이 만난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늘 앓고 있었고, 또 춘원은 양심적이기 때문에 나를 속이는 일은 절대 없으리라고 나는 믿습니다마는, 그들이 찾아다니는 것이 나는 싫었습니다.

- 허영숙 회상문 「남편 춘원을 생각하고」 부분

이 글에서 M여사는 모운숙을 지칭하는 것이고 P여사란 여인소극장 대표였던 박노경을 가리킨 것이다. 춘원은 초창기에 시를 써서 발표한 모운숙을 당시 재직하던 《동아일보》로 불러 격려하고 시인으로서, 여성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 등을 지도하였다. 모운숙의 嶺雲영운이라는 호를 춘원이 지어 주었으며, 소설 「유정」에서의 사랑하는 남녀 주인공은 춘원과 모운숙의 사랑을 모델로 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훗날 모운숙의 결혼 상대로 독일 유학을 마치고 온 안호상 박사를 소개하여 결혼하도록 마음을 쓰기도 하였다. 성격 차이로 그들의 결혼 생활은 오래 가지 못했으나 모운숙은 장편 연작시 「렌의 애가」를 여러 차례 발표하였다. 춘원이 납북된 이후까지 이어졌는데 작품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남성이 춘원이라는 추리를 하게 할 정도로 각별한 관계가 오래 지속되었다.

춘원이 장남 봉근의 죽음 등으로 생의 無常무상함을 깊이 느끼고 금강산 장안사에 들어가 불교에 입산하려고 한 일이 있었다. 1933년에 모운숙이 시집 『빛나는 지역』을 발간하였는데 卷頭권두에 춘원의 축사도 실렸으니 그 무렵의 일이다. 모운숙은 아직 이화여전에 재학하고 있던 때였는데 어머니와 금강산 유람을 하는 중에 춘원의 입산 소식을 듣고 찾아가 입산이란 말도 안 된다고 극력 말렸다. 기념사진도 찍고 서울에서 만나자고 굳게 약속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 사진이 어떤 경로로 신문에 보도되고 춘원이 입산하려다 모운숙의 권면으로 단념했다는 풍문을 낳기도 하였지만, 춘원은 불교 사상이 상당히 깊이 뿌리 내리고 불경 공부도 많이 하여 평소에 불교를 많이 가까이 했으며 작품에도 불교적인 내용이 많아서 가끔 불교에 입문하는 것을 생각했다고 한다.

광복 후에 모운숙은 이승만 박사와 가까이 교분을 갖고 이광수, 임영신 등 인사를 소개하였고, UN 한국 위원단 대표였던 인도 출신의 메논과도 적극 만나 춘원과 메논 등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했으며, 우리 문화와 예술에 대한 춘원의 소개로 대한민국 독립의 필요성과 공산당의 실상을 알아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수립하여야 한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모운숙은 건

국을 전후하여 여러 차례 국제 연합 등 여러 모임에 한국을 대표하여 활동하였는데, 그런 동기가 존경과 사랑의 대상인 춘원의 지도의 보람인 것이라 하였다.

소년 시절부터 외세의 각축으로 망국의 비애를 안고 자주독립을 바라고 투쟁하며 국민을 계몽하는 등 헌신한 보람은 이렇게 대한민국의 독립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4. 결론

본고는 춘원에 대한 친일 등 논란과 재판이, 6·25 전쟁 중 북한군의 춘원 납북으로 작고하게 하여 판결이나 결론이 유보된 채 몇 십 년이 지난 간 특수 사정을 재조명하고 공과 과를 밝혀 보자는 입장으로 시작하였다.

일제말 일제의 악랄한 책동으로 당시 활동했던 문인의 약 90% 정도가 친일에 가담했다는데, 그들도 광복 후 한 동안 침묵하다가 6·25를 만나 국군 위문 활동을 하는 등 애국 활동에 나서며 반성을 하고 救國구국의 대열에 가담했다. 한때 절망적인 상황 아래 잘못 판단하고 친일했던 문인들이 대오 각성하고 자기 전공 분야에서 문화 예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이들도 많다.

춘원은 장편소설 「원효대사」를 통하여 자기의 작품으로 자신도 변호하고, 마치 원효대사가 과거했던 것처럼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친일의 활동을 했지만 자기의 진심은 일제 침략기에 슬기롭게 살면서 자주독립할 날을 기다리자는 것이었는데 자기가 바란 대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다는 것이었고, 납북되어 죽음을 맞았으니 참으로 억울하게 생을 마쳤다는 悔恨회한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결국 다른 문인들보다 상대적으로 불명예스럽고 불운한 위치에서 별세하고 만 일이 애석하다.

그가 뛰어난 재주와 우국 충정으로 민족의 독립과 국권 회복을 바라고 애써 온 업적이 말년의 휘절로 인한 허물보다도 훨씬 더 빛난다는 것을

확신한 필자는, 적지 않은 친일 문인들이 자기 과오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자기 전공 분야에서 우리 고유의 전통과 특징을 살려, 많은 업적을 올림으로 명예를 회복한 사실과 견주어 보며 춘원에 대한 연민 같은 감정을 솔직히 갖게 되었다.

춘원은 1910년 무렵부터 1930년대 말까지 약 35년 이상을 자주 독립과 민족 문화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동안 우리는 그를 존경했고 사랑하며 스승으로 모셨다. 그로부터 광복까지 약 6년 동안 악랄한 일제의 강압과 회유 술책에 굴복하여 친일과 반민족 활동을 한 것이지만, 그의 35년 동안의 혁혁한 공로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하고 친일에 대한 지탄만을 가혹하게 받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우리 문인들은 개인이나 단체의 힘을 모아 춘원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차원 높게 바꿔 功業공업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령 춘원문학관이나 기념관이라도 세워서 신문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글을 맺는다. **문예운동**

- | | |
|---------------------|-------------------------|
| 보리피리 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 백필기
문예운동 / 값 12,000원 |
| 언제나 너를 위로해 줄게 | 하금주
문예운동 / 값 10,000원 |
| 쌀물이 데려간 약속 | 유영자
문예운동 / 값 12,000원 |